접착제, 수용성 성장 가능성 높다!

환경규제에 맞춘 R&D 불가피 ... 실리콘·나노기술 적용제품 기대

접착제 공급기업들이 고객의 요구와 low-VOC(Volatile Organic Compound) 포물레이터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에 R&D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.

또 PST(Pressure Sensitive Tape) 및 PSL(Pressure Sensitive Label) 수요강세에 힘입어 수용성 포물레이션 시장이 연평균 5-6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mulsion Polymer 기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Bemis' Mactac은 USPS(U.S. Postal Service)의 자체적으로 접착제가 묻어 있는 <Dr. Seuss> 기념우표용 PSA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존 USPS와의 공급계약도 연장하게 됐다.

R&H는 Dow Corning과 합작계약을 통해 의료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.

R&H는 상처 치료와 피부로 약을 침투시키는 접착제 개발을 위해 Dow Corning에 Acrylics 및 접착제를 공급하기로 합의했으며, Dow Corning은 R&H의 Acrylics과 자사의 실리콘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Dow Corning의 수요기업에 판매할 계획이다.

R&H는 이미 실리콘 시장에 진출한 상태이나 Dow Corning과의 합작을 통해 고객 베이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접착제 공급기업 및 포물레이터들은 여전히 신제품과 새로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.

한편, 대부분의 접착제 메이저 및 접착제 원료 공급기업들은 나노기술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, 나노기술은 접착제 결합력을 향상시키고 접착제의 무게를 20-40% 가량 감소시켜 더 가볍고 부피가 작은 포장 필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그러나 접착제 공급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화학저널 2004/09/21>